

분류	산업선교
제목	OMC의 새로운 시작(7)- 인생의 스케줄을 만들어야
성경	요한삼서 1:2, 로마서 16:23
일시	2010년 3월 6일
장소	서울 산업 선교센터
강사	류광수 목사 (정리: 차동호 목사)
주제어	

♣ 성경말씀 (요한삼서 1:2, 로마서 16:23)

02/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23/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 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성의 제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 교재 자료 ♣

1.인생 스케줄을 바르게 만든 사람들

- (1)렘넌트 7명
- (2)빌3:1-21
- (3)행1:1
- (4)요삼1:2, 롬16:23

2.큰 스케줄

- (1)전도자의 시작 (개인) (행1:1-14)
- (2)Elite의 삶 (함께) (딤후2:1-7)
- (3)전도전문 목표 (지교회) (롬16:1-27)
- (4)전도운동 지속 (교회) (행2:1-47)

3.전도자의 일기

- (1)오늘의 전도, 기도, 말씀
- (2)주간전도
- (3)주간 스케줄
- (4)만남
- (5)지교회 (다락방)

(The end)

♣ 요약 자료 ♣

♣ 서론- 가이오

요삼1:2(요한)-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같이...

롬16:23(바울)- 나와 온 교회의 식주인

▶오늘의 전도, 기도, 말씀이 어떻게 이해되고 전달되어야 하는가? 세가지가 나왔을 때 가능하다.

- ①인생 스케줄
- ②큰 스케줄(세계복음화를 놓고)
- ③전도자의 대열에 서서 가고 있을 때 오늘의 전도, 기도, 말씀이 의미가 있다.

1.인생 스케줄을 바르게 만든 사람들

- (1)렘넌트 7명- 인생스케줄이 분명했기 때문에 오늘의 의미가 있다. 교인들로 하여금 기도제목을 바로 알게 만들어주라..
- (2)바울(빌3:1-21)
- (3)누가(행1:1)
- (4)가이오(요삼1:2, 롬16:23)- 처음부터 끝까지 인생스케줄을 보았다.

2.같이해야 되는 큰 스케줄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 (1)단순히 개인이 아니라→ 전도자라는 스케줄(행1:1-14)
- (2)엘리트의 삶을 가르쳐야 한다→ RUTC
 - ▶우리가 인생 투자를 제대로 가야 한다. 방향이 굉장히 중요하다. RUTC에 인생을 투자 시켜라. RUTC에서 제일 잘해야 될 중요한 것이 엘리트 교육이다(학업+신앙생활+생활). RUTC에 각 분야의 전문학교를 만들어야 한다. 우리가 렘넌트가 가야할 길을 실제로 준비해야 한다. RUTC는 영원한 투자가 된다.
 - (2)전도 전문훈련→ 제대로 된 지교회를 하라.
 - (3)이런 전도 운동이 지속되도록 하는 개체들이→ 교회이다.

3.전도자의 일기

- ▶1, 2번 속에서 나는 전도자다!
- (1)오늘의 전도, 기도, 말씀이 나온다.
- (2)주간 전도→ 스케줄이 굉장한 의미를 둔다.
- (3)주간 스케줄을 짤 때→ 시간표가 의미 있다.
- (4)이럴 때 만남이 어떻게 되는가?
- (5)모든 현장까지 지교회로, 개인에게 다락방으로 전달되는 것이다.
- ▶이것 때문에 여러분은 이 시대에 부름받은 아주 중요한 사람들이다.
- 정확한 내 인생 스케줄, 내 교회와 렘넌트를 놓고 내 인생 스케줄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 이때 나오는 것이 “오늘”이다.

(The end)

❁ 녹취 자료 ❁

서론

▶가이오- 성경에 최고의 축복을 받았던 평신도이다. 성경에 최고의 응답을 받았던 중직자이다. 그리고 산업인이다. 그렇다고 볼 때 여러분들이 굳게 붙잡아야 되는 언약이다.
 요삼1:2, 요한이 이렇게 말했다.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기도한다고 했다. 얼마나 영적인 축복을 받았으면 네 영혼이 잘된 것처럼 다른 것도 그렇게 되기를 기도한다고 얘기했다.
 롬16:23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때 바울이 한 말이다. 바울이 이렇게 표현했다. 나와 모든 교회의 식주인이다. 이번 성경에는 돌보아주는 자라고 되어있는데 같은 말이지만 전의 성경이 표현을 더 잘했다. 나와 모든 교회의 식주인이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램넛에게도 설명해야 되고 우리도 응답을 받아야 하지 않겠는가.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라는 게 어떻게 이해하고 전달이 되어야 되는가? 이게 세 가지가 나왔을 때 가능하다.
 내가 인생 스케줄이 잡혔을 때 그때에 오늘의 말씀이 의미가 있지 이게 흔들리면 의미가 없다. 그리고 세계복음화라는 큰 스케줄이 내게 있을 때 이게 의미가 있는 것이다. 이 속에서 정말 내가 전도자의 대열에 서서 가고 있을 때 이때 이게 의미가 있는 것이다.
 램넛에게는 꼭 이해시켜야 된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똑같이 가이오가 받는 응답을 받을 수가 있다. 이걸 놓고 늘 기도해야 된다.

1.인생 스케줄

▶내 인생 스케줄을 바르게 만들면 그때부터는 오늘이 의미가 있다.

(1) 램넛 7명(기도제목)

▶예를 들어서 램넛 7명이 그랬다. 램넛 7명의 특징은 자기 인생 스케줄 전체를 갖고 있었다. 오기나 야망이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의 계획 전체를 자기가 얻은 것이다. 이때 이게 너무나 바르고 분명했기 때문에 오늘이 의미가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요셉에게 이게 너무 분명했기 때문에 노예로 갔는데도 의미가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총리로 가니 이걸 더 의미가 있는 것이다.

▶우리 모든 중직자 모든 교역자가 다 이 부분은 싸워서라도 분명히 찾아내야 한다. 전도전문합숙에서 강의할 내용 중 하나지만 거의 보면 사람들이 기도제목이 틀리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전도전문합숙에서 강의할 것인데 인생 스케줄을 바르게 가져야 되는 것이다. 하나님은 분명히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내가 알기로는 거의 다 틀린 기도제목을 갖고 있다. 그러면 안 된다. 하나님은 분명히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내 인생이 장난이 아닌데 틀리게 갖고 있으면 이상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 램넛들도 고민해야 되는 게 뭐가 하면 램넛들도 거의 보면 틀리게 지망을 많이 한다. 내가 볼 때 저 아이가 저 학과를 안 가는 게 좋겠는데 간단 말이다. 그게 틀리게 지망하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교수들이 왜 중요한가 하면 교수님들은 이미 자기 전공에 대한 것을 잘 선택을 해서 와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앞으로 램넛트에게 지도해야 될 가장 중요한 부분이 그 부분이다. 나는 옛날에 처음에 교회를 시작할 때 제일 먼저 한 것이 인생 스케줄이다. 제일 먼저 교인들에게 기도제목을 바로 알게 만들었다.

▶전문전도훈련에서 나오고 상위어른들 몇 분은 좀 참고하셔야 된다. 내가 오늘 오후에 전도전문합숙의 모든 강의를 녹화한다. 그래서 일찍이 부산에 내려가야 되는데 못 가고 전체를 촬영해야 한다. 거기에 어른들은 좀 참여하시는 게 좋겠다. 말하자면 전도전문훈련이 열리면 전도훈련은 세미나가 아니기 때문에 꼭 필요한 메시지를 주고 증인을 데려다가 듣고 본인이 만들어내는 것이다. 그걸 내가 오늘 여섯 강의를 촬영해야 한다. 그런데 나 혼자 강의할 수는 없으니까 중요한 분들은 좀 계시면 좋겠다는 말이다. 이것이 그 여섯 강의중 하나에 나오는 내용이다.

(2) 빌3:1-21

▶바울이 공부도 많이 했지만 자기 인생 스케줄을 고백했다. 이것을 바르게 만든 게 아니고 찾아낸 것이다.

(3) 행1:1

▶그리고 의사 누가를 보라. 의사로서도 성공했지만 이 사람이 지금 자기인생의 남은 부분에 깨달음을 얻은 것이다. 의사에 성공한 사람이 바울을 본격적으로 따라다니면서 기록을 했다. 그러니까 의사는 이정도 성공해야 된다. 자기가 옛날에 질병을 도와주는 주치의 역할을 했는데 그 중요한 총독을 보낸 데오빌로에게 보낸 편지란 말이다. 나는 보면서 인생 스케줄을 기가 차게 봤다고 생각한다. 거기서 뭐가 나왔는가 하면 본인도 몰랐겠지만 지금도 세계를 움직이고 있다. 지금 굉장한 말씀인 사도행전을 누가 기록했는가 하면 의사 누가가 따라다니면서 보고 기록했던 말이다.

(4) 요삼1:2, 롬16:23

▶그 중에 오늘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가이오이다. 요삼1:2, 롬16:23은 무슨 말인가? 처음부터 끝까지라는 말이다. 이렇게 인생 스케줄을 잘 본 것이다. 그런데 내가 보면 자꾸 틀리게 하는 사람들이 많다. 일이 틀리다는 말이 아니고 내 인생 스케줄에 틀린 것을 자꾸 붙잡는다.

▶자, 이런 것을 본 사람들의 오늘이다. 이 말이 보통 말이 아니다. 여러분 정시기도도 전도하고 있는 사람이 하는 정시기도와 안 하는 사람이 하는 정시기도는 다르다. 이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같이 해야 되는 큰 스케줄을 분명히 볼 수 있어야 한다.

2.큰 스케줄

▶그래서 큰 스케줄 속에는 몇 가지가 들어있다.

(1) 전도자

▶단순한 내 개인이 아니고 전도자라는 스케줄을 갖고 있어야 한다. 행1장에 나타나는 전도자라는 스케줄을 분명히 해야 된다. 이게 이제 전문합숙에서 찾아내야 되는 것이다.

(2) RUTC(Elite)

▶그리고 엘리트를 가르쳐야 하는데 이게 RUTC이다. 분명히 해야 된다. 어떤 면에서 RUTC에 인생을 투자하는 분들이 나오셔야 된다.

나는 어떤 분이 학교를 어디서 한다가에 RUTC에서 하면 더 좋고 더 미래가 있을 텐데 하는 생각을 했다.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될 만들어내는데 내가 속으로는 어리석다는 생각이 들었다. 저걸 RUTC에 투자하면 영원할 것인데, 그렇지 않은가? 그리고 자기 사역도 살고 교회도 살고 다 살 것인데, 그래서 나는 부산에도 그런 말을 했다. 교회에서 뭐 특별한 것 하지 말라. RUTC에다 하면 되는 것 아닌가? 내가 심지어 그런 말을 했다. 교회도 RUTC에다 지으면 될 것 아닌가?

▶그런데 우리가 인생 투자를 제대로 봐야 된다.

그래야 여기에 인생을 걸고 그래야 오늘이라는 게 의미가 있다. 내 인생 투자를 하나님 앞에서 틀리게 하는데 어떻게 역사가 일어나는가? 우리가 현금을 모으는 것은 기도를 모으는 것인지 그걸 모아가지고 어떻게 전 세계에 RUTC를 만드는가? 평소에 학교에 꿈을 가진 사람들은 인생을 앞으로 RUTC에 투자하고 평소에 문화에 꿈을 가진 사람은 문화를 RUTC에 투자하고. 그게 맞는데 방향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쉬운 말로 문해영 씨 같은 경우 자기 아카데미를 만들었다. 그래서 나는 참 잘한 일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마음속으로는 나와 의논했다면 내가 방향을 다르게 잡아줬을 텐데. 바로 그 돈을 들고 RUTC로 들어가 버리면 영원히 갈 수 있다. 그게 훨씬 클 수 있다. 그렇지 않은가? 그러니까 RUTC에 인생을 투자시켜라. 얼마나 의미 있는가?

▶이 투자는 그냥 내는 현금과 다른 것이다. 내가 들어가서 내가 사는 것이다. 이걸 초대교회가 잘한 것이다. 초대교회가 단순하게 현금을 받은 것이 아니다. 자기의 인생을 투자시켜 버렸기 때문에 거기서 인생이 다 사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요셉이라고 하는 바나바가 자기 재산을 싹 다 냈다. 그건 사람들이 각도를 이상하게 보는데 나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 이 사람이 자기의 전 인생을 교회에 투자해서 인생을 꽃피우기로 작정한 것이다. 제대로 한 것이다.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만약 내가 나이가 많이 들어서 죽게 되었는데 만약에 나에게 하나님이 축복한 것이 있다면 그걸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게 RUTC에 내는 것이다. 그러면 자식들은 어떻게 하는가? 아니 거기다 인생을 투자해놓으면 자식이 거기서 살면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 예를 든다면 우리 정은주 목사님 같은 경우는 어떤 인생을 투자해야 하는가 하면 그 아들을 통해서 전 세계에 있는 그 부분에 사망 가진 사람들을 모아서 투자할 것을 만들어야 한다. 내가 볼 때는 큰 기능과 소질을 가지고 있는 램넛트란 말이다. 그러면 거기서 평생동안의 축복을 전 세계적으로 누릴 수 있다. 이게 인생투자이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기도하셔야 될 것은 RUTC에서 지금 제일 해야 될 중요한 것이 뭐겠는가? 우리 아이들이 여러분 집에서 자라기 때문에 엘리트가 될 수 없다. 나 자신도 우리 아이를 키운다면 엘리트로 못 키울 수가 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을 모아놓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키우면 훨씬 엘리트로 키울 수 있다.

지금 당장 시설이 없어서 투자를 못 하는데 RUTC가 만들어지면 방향 때는 우리 전 램넛트가 인생을 걸고 투자해야 된다. 거기서 엘리트 규모, 학업, 팔팔을 다 만들어야 된다. 이게 제대로 안돼서 지금 많은 부모들은 걱정하고 있다. 우리 아이를 어떻게 할 것이냐? 수련회를 보내면 학원은 어떻게 하냐? 그런 실제적인 걱정을 가졌다. 아니 우리 아이를 자꾸 학원 보내놓으니 이게 또 신앙생활이 안 된다. 아이들이 신앙생활이 되는가? 우리가 학교 다닐 때도 독서실 간다며 불러 다닌 아이들이 많았다. 그래서 이런 것을 제대로 해야 되는 것이다.

▶여러분이 RUTC를 다시 한 번 생각해보라. 인생을 간단하게 생각하지 말고 모든 소그룹에 학교를 다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RUTC관계자들이 참고할 것은 내가 일부러 지금 RGS를 만들어본 것이다. 그런데 나보고 물어보지 말고 일하는 사람에게 물어보지 말고 그 학교에 간 학생과 부모에게 물

어보라. 당장 아이가 변화가 일어난다. 그러니까 아이들을 모아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우리가 한다는 이게 얼마나 중요한건지 모른다.

▶프랑스를 갔더니 프랑스에 있는 교수분이 내게 부탁을 했다. 목사님 RUTC를 짓는다면서요? 그렇다. 거기에 전문학교를 만드세요. 예를 들어서 인가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지금 프랑스에 유학오는 사람들이 전혀 정보없이 오기 때문에 와서 다 망합니다. 전혀 자기에 대한 개발과 정보가 없이 오기 때문에 차라리 한국에서 공부하는 게 낫지 외국에 와서는 거다 망칩니다. 내가 볼 때는 그 사람의 말이 맞는 말이다. 애타게 얘기하더라. 이런 게 RUTC이다.

▶우리가 지금 램넌트들이 가야 될 길을 장난이 아니고 실제로 준비해야 된다. 내가 김성진 장로보고 그런 얘기를 했다. 앞으로 연구소를 RUTC로 들어오면 안 되겠느냐? 그러니까 본인도 그렇게 생각해봤다고 하더라. 앞으로 그렇게 하자. 아주 크게 성공해서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노벨상을 주시면 그것도 전도에 큰 방법이 되지 않느냐. RUTC로 들어오라. 그러니까 영원한 투자가 된다. 그러니 목사님들도 많이 생각해보라. 여러분 교회 안에서 만들어놨자 아무리 해도 거기에 국한된 것밖에 안 된다. 절대로 한 교회, 한 나라에서는 이 운동을 못 한다. 그게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의 아이들과 자녀들을 망치고 있는 것이다. 세계적으로 모아서 세계에 눈을 뜨게 만들어야 한다. 그러려고 하니까 RUTC를 만들어서 힘을 모으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의 아들딸, 손자손녀가 갔을 때 뭐가 보아야 된다.

(3)지교회

▶그래서 지금 진도전문훈련은 왜 시작하는가? 제대로 된 지교회를 하라는 것이다.

(4)지속

▶그리고 여러분 교회에서 붙잡아야 될 가장 큰 것은 뭔가? 이런 운동이 지속되도록 하는 개체들이 교회란 말이다.

3.전도자의 일기

▶자, 이런 큰 스케줄을 놓고 나는 전도자란 말이다. 이런 속에서 오늘은 어떤가? 나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 나는 여러분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면서 오늘을 보면 매일 응답이 보인다.

(1)전도, 기도, 말씀

▶여기서 나오는 것이 오늘의 전도, 오늘의 기도, 오늘의 말씀이다. 이게 의미가 있는 것이다. 우리 램넌트가 어릴 때 이렇게 봐버리면 굉장해지는 것이다. 불가능한 게 아니고 램넌트 7명이 왔다. 램넌트 7명이 왔다는 말은 우리도 볼 수 있다는 말이 된다.

(2)주간전도

▶이렇게 될 때 이제 그냥 스케줄이 아니고 주간전도나 이런 스케줄이 굉장한 의미를 두는 것이다.

(3)주간 스케줄

▶이래놓고 내가 주간 스케줄을 짤 때 굉장한 시간표가 만들어진다.

(4)만남

▶어릴 때에 이제 만남이 어떻게 되는가? 이런 게 없는 사람들이 만나면 꼭 만나도 자기 같은 사람을 만난다. 아니 노름꾼들을 보면 꼭 노름꾼끼리 만난다. 어쩔 수 없지 않은가. 왜냐? 스케줄이 이렇게 되어있기 때문이다. 술꾼들을 보면 꼭 술꾼을 만난다. 그럴 수밖에 없다. 만남이라는 게 다인데 이런 굉장한 축복이 달라지는 것이다.

(5)지교회(다락방)

▶그래서 이 축복이 모든 현장까지 지교회로, 개인에게 다락방으로 전달되는 것이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어떤 면에서는 당연한 것이다. 이 부분들을 유대인들이 잘 못 깨달은 이유가 유대인은 자기들의 체질 때문에 그렇다. 이것 때문에 여러분은 지금 부름을 받은 아주 이 시대에 중요한 사람들이다. 틀림없다. 여러분이 이 언약을 붙잡아야 여러분 램넌트에게도 전달할 수 있다. 여러분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정확한 내 인생 스케줄이 뭐인가를 찾는 것이 과제 중에 과제이다. 그리고 지금 램넌트 전체와 우리 교회에 내가 전도자로서 어떤 스케줄을 찾을 것인가가 다이다. 그때에 나오는 가장 큰 응답이 오늘이다. 이 축복을 여러분이 오늘도 누리게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한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중요한 축복을 받은 모든 전도자들 위에, 오늘을 전 세계를 향해 살릴 전도자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시지어다. 아멘.

(The end)

세계복음화 상임위원회 인터넷총국	
① http://www.jcking.net ② http://www.darak.net	
총 국 장:	김성호 목사 (☎011-505-5684)
실무국장:	차동호 목사 (☎011-375-9383 ☎3759383@paran.com)
후원계좌:	(국민은행) 682401-01-338981 차동호(인터넷총국)